

졸업생 취업수기_광운대학교 강**

□ 강**

1. 간단한 자기소개

- 29 / 남 / 경영학부 / 일본어 배운적 없음 / IT배운적 없음 / 정보처리기사 없음(과정 중 취득).
- 일본취업결심이유 : 사실 처음부터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스터 과정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ICT분야로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해당 교육 커리큘럼에 이끌려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업 기회와 질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일본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고, 일본에서의 경력이 미국, 유럽, 호주 등 또 다른 나라 혹은 한국으로 돌아오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SCIT마스터 생활

IT는 처음이었지만 따라가는 데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과제정도만 따라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끔 역량 평가 대비로 따로 정리해서 공부를 해두면 충분할 것입니다. 팀 프로젝트나 개인 프로젝트는 단순히 배운 것 이외에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 보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어는 어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스터 과정에서 히라가나부터 배운 초심자였기 때문에, 수업에 충실하고 수업 외적으로도 단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단어장을 만들어서 이동시간에 단어를 외웠습니다. 어휘량이 많아지면 들리는 것도 많아지고, 수업시간에 배운 문법으로 간단한 회화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초급반 분들은 어휘가 부족하고 안들리는 것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단어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과정 중반이 넘어가면 팀프로젝트로 인해서 일본어를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매일매일 학습량을 정해두고 꾸준히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막판까지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실력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언제나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면접 준비 시즌에 들어가면 수업도 면접 준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자기주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분석 한답시고 대충 시간만 죽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주변에서 하나둘씩 결과가 나오면, 하기 싫어지고, 그냥 시간만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기에 정말 열심히 페이스 유지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기업에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합격 통보 한 두개 째름은 누구나 받는 것이니 불합격에 흔들리지 마시고 다음 기업, 다음 일정을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때는 대부분 인성이나 이력서 관련 질문이기 때문에, 일본어가 부족하다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꾸준히 일본어를 공부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SCIT마스터 지원 전 가장 망설였던 것

많은 분들이 비슷할 것이라 생각되는 데, IT/일본어 비전공자인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 일본어 잘하는 고급반이나 IT전공자도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고, IT와 일본어 둘 다 못하고 정보처리기사도 없어도 취업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현지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없지만 과정에 충실하시면 누구나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과정에 임하고 1년가까이 긴 기간동안 열심히 할 자신만 있으시다면 걱정말고 지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충 이거 수료하면 취업된다던데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하시면, 뻑뻑한 스케줄을 못 버티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하는 생각에 그만두게 될지 모르니, 그냥 어디든 취업하고 싶어서 오는 분은 지원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자유의견

제가 생각하는 마스터의 가장 큰 장점은 함께 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졸업후에도 동문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아직 경험을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과정내에서 풀타임 커리큘럼에 과제/일본어 시험/정보처리기사 등등 새벽부터 수시로 밤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견디고 취업에 성공하는 데에 큰 힘이 되는 것이 함께 노력하는 동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특히 그런 협업과 협동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될텐데 남들 다 팀프로젝트 하는데 혼자 일본어 개인공부를 한다던가 하는 이기적인 분이 되지 않드시길 바랍니다. 아마 지원 고민중? 혹은 들어온지 얼마 안된 분들이 이 수기를 보게 될 것 같은데 힘내세요. 잘하는 사람이 남는게 아니라 남은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졸업생 취업수기_광운대학교 임**

□ 임**

1. 자기소개

우선 저는 컴퓨터 전공이고 중학교시절부터 일본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했기때문에 듣는것은 어느정도 되는 상태에서 이 과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오게된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본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했고, “지금 아니면 과연 내 인생에서 해외에서 일을할수 있는 기회가 올까?” 라는 생각에 이 과정을 지원하게되었습니다.

2. SC IT 마스터 생활

IT수업같은경우에 처음배우는 과목은 JAVA인데, 비전공자도 따라갈수 있도록 기초부터 가르칩니다. 또한 일본어도 실력별로 반을 나누어서 가르치는데 초급,중급,고급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나누는 기준은 일본어자격증과 과정 들어갈때의 면접입니다. 저는 자격증이 없었기때문에 초급반에 들어가서 일본어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일본어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어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수업시간은 8시 30분까지 와서 출석체크를 하고 9시부터 수업시작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1시까지인데 이 때, 코엑스 근처의 직장인들과 코엑스 방문객들도 점심을 먹을 시간이기 때문에 코엑스뿐만 아니라 근처 식당도 훑어서 점심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점심엔 간단하게 때우는것을 추천합니다. 주변에서는 단체로 컵밥을 주문해서 먹는걸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시~4시까지는 수업을 하고 4시~5시까지는 자습시간입니다. 5시~6시까지는 저녁시간인데 이 때는, 코엑스방문객들도 줄고 근처 회사원들의 점심시간이랑도 겹치지 않기때문에 어디가든 프리패스로 밥을 먹을수있습니다. 6시~7시 50분까지는 다시 자습시간이고 7시 50분~8시즈음 출책을하고 집에갈수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사람은 남아서 오후 11시까지 자습을 더 할수있습니다.

3. 참고사항

이 과정에 들어오기전에 정보처리기사나 일본어 JLPT N2이상 들중 하나는 따고 들어오시는게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격증을 위해 따로 편의를 봐주거나 하지 않기때문에 일본어수업과 IT수업을 따라가면서 공부를 해야합니다. 특히 일본어와 IT 둘다 처음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둘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매일 오후 8시이후 추가적인 자율학습을 각오하셔야됩니다. 그만큼 정보처리기사와 JLPT N2이상의 자격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격증들의 보유여부로 서류심사의 당락이 바뀝니다.

면접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실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중 하

나가 면접대비였습니다. 취업시기가 다가오면 면접에 자주나오는 질문들이나 면접예절등들 자세하게 알려주고 실습도 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 첨삭과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전부 일본어선생님들이 교정해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말만 잘 따르면 면접준비는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4. JLPT N2이상 VS 정보처리기사

둘중 하나를 선택한다고하면 저는 정보처리기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일본어같은경우에는 JPT도 있기때문에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정보처리기사는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정보처리기사 취득일로부터 경력이 인정되기때문에 일본에서의 경력을 어느정도 손해볼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따는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IT가 일본어보다 우선이냐고 물으실수 있으실텐데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어를 더 중시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업에 들어가기위해서는 면접을 봐야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어입니다. IT가 정말 안되도 일본어가 어느정도되서 기업에 들어간 사례도 실제로 봤습니다.

5.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퇴교하시는분들 많이 봤습니다. 11개월의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IT전공자나 일본어 잘하시는분들은 수업시간에 자신이 아는것을 배울때 조바심이 날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운것들을 다시 기초부터 배울때 조바심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자체가 비전공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IT전공자나 일본어 잘하시는분들은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좀더 시간을 투자하고 둘다 처음하시는 분들도 일본에 가고싶어하는 의지만 있다면 수업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만 따라갈 수 있다면 일본취업은 문제없다고 자신 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수기_광운대학교 김**

□ 김**

약 1년전 SC 마스터 과정에 대해 알아볼때 이곳에서 선배님들의 글을 읽고 많은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 외에도 여러 국비지원 해외취업 과정들을 알아봤던 기억이 나네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지금 이 글을 읽으시고 계신것만 해도 좋은 선택을 하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2015년 하반기에 일본취업 박람회를 통해 일본 취업을 도전했다가 무참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 졸업을 앞두고 일본어는 히라가나도 제대로 쓸 줄 모르면서 영어로 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포지션이 있을거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지원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제 부족함을 깨닫고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SC 마스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IT는 전공자라고 만만하게 보고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아시는 내용이 나오면 사회생활 전 마지막 복습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기존에 배우셨던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며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것인지 철저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비전공 개발자들이 현장에도 많습니다. 특히 이 과정이 끝나면 비전공이었던 친구들이 다른 분야의 전공지식을 보유한 융합형 개발자가 되어 더 뛰어난 활용력과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과정의 장점이 그런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점이고 이는 둘도없는 발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생물학 용어중에 공진화(Co-evolution)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생물체가 살아남기 위해 진화를 거듭하지만 주변 환경도 함께 진화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과 같은 현상을 말합니다.

뜬금없이 생물학 용어를 말하는 이유는 제가 이 과정을 한마디로 이야기 하자면 “11개월간의 공진화”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내 실력과 오늘의 내 실력이 다르듯이 옆자리의 동기들도 매일같이 발전하기에 마치 본인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아무리 뛰어도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11개월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옆에 있는 동기들이 있었기에 진화라고 불리울 수준의 변화를 해낼 수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을 믿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잊지 않으며 노력하면 이 과정이 끝나고 놀랄정도로 성장한 본인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점, 팁과 노하우 같은 정보는 다른 동기들이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었기에 저는 제가 느낀점 위주로 소감을 썼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마지막으로 이 과정 내내 저와 함께해주신 31기 여러분들과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선생님/직원 일동분에게 감사드립니다.